

# 인생에 있어 올바른 가치관의 역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좀더 보람된 것을 찾아보려고, 좀더 훌륭한 것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본능입니다. 좀 더 보람된 것, 가치있다는 것은 각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치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고로 점점 더 물질에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의 시대로 화해가고 있습니다.

## 물질과 권력과 이성간의 사랑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는 인생을 온전히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시간 편안함을 즐기는 것은 몰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며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치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남녀의 만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남녀간의 사랑 속에 행복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사랑은 상처를 남기고 마음에 괴로움만 끼치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간의 사랑이 욕망의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남녀지간의 사랑으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로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여 물질을 쌓아놓은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며 부자가 되어 봤지만 역시 그곳에

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면 행복을 누릴까 하여 권력을 잡아 보았지만 역시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 온전한 철학이 없었던 고로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는 이러한 실책을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치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 철학이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철학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온전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와 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철학을 들고 나왔더라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온전한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철학이란 생의 목적과 이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생의 목적과 이념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고로 온전한 철학이 등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인간의 주체성이 마귀의 영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오늘날까지 왜 생의 목적과 이념이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모든 인생들의 주체성이 바로 마귀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영은 마귀의 생각 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은 욕망의 이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기준이라는 것은 '나' 라는 의식을 벗어나서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욕망의 이념을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말할 수 없이 그 가치에 한계가 있는 철학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주체성이 마귀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 라고 하는 주체성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나' 라고 하는 주체영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피곤하고, 늙음과 죽음은 오는 것입니다. '나' 는 '나' 라고 하는 의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한계가 그어져 있는 좁다란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원래 사람의 주체성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속에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 양심이 주체성이었고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아말로 생명의 영이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의 힘으로 그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학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사람이 왜 사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들은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다만 살고 있는 것 뿐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학문은 학

문이 아닌 것입니다. 참다운 학문이라는 것은 생명 속에 존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풀이 왜 사느냐, 나무가 왜 사느냐 하는 것이 학문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의 학문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나' 라는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 '나' 라는 주체 의식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은 지배를 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인간의 주체성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는 시대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은 행복을 찾게 되고 인생은 삶의 보람을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인생은 죽음도

모르고 불안 공포도 모르고 괴로움과 고통도 모르고 눈물과 탄식을 모르는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참학문이 나와야 사람이 왜 죽으며, 사람이 왜 살며, 사람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 어둠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 어두운 세상이나 하면 그것은 마음이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 될 아는 척하면 그건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생의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살지? 하면 그저 엉뚱한 대답으로 돌려대거나, '난 몰라, 왜 사는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니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오늘은 왜 사는지 내일은 왜 사는지 여제는 왜 살았는지 목적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돼지나 소나 개새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돼지나 개새끼는 사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먹는 거나 알고 자식 새끼나 알고 그날그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소 돼지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냐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느냐. 인간의 본향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주체 영이었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므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마귀의 영과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요 이념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되시는 하나님은 그 자식이 고생고생하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

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무궁토록 살려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무궁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다면 마음에 그들이 진다든지 하면 영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하려면 그 마음 속에 그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잠시만 기쁘고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면 영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해야 하는 것이요 그 기쁨이 식어버린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바로 영생이요, 영생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 하나님의 신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알게 될 때에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의 기쁨입니다. 양심의 기쁨은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 가 좋아하는 기쁨은 잠시 후에는 식어버립니다. '나' 라는 영이 욕망을 충족시킬 때에는 잠시잠깐의 쾌락이 있는지는 몰라도 순간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 라는 주체성이 작용할 때 하나님의 신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는 말할 수 없이 우울하고 몸이 무겁고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괴로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라는 것을 버리세요. '나' 라는 것은 아깝없이 던져버리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몸짓을 보세요. '나' 라는 것을 던져 버릴 때에 비로소 '나' 는 사라지고 기쁨의 신인 하나님이 내가 되어 놀라운 기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내가 되는 고로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니 이 사람을 봐도 즐겁고, 저 사람을 봐도 즐겁고, 저 사람을 봐도 천사같고, 이 사람을 봐도 꽃과 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고로 상대방도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 조희성님의 발자취



# 나라는 것이 원수 마귀인 고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

밀실에 들어가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한 중노동을 자발적으로 하였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 그 동네나 이웃 동네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저기 꽃집의 머슴 아저씨 간다."고 소리 지르기도 할 정도였다. 틈틈이 산에 가서 쫄나무를 캐와 밀실을 꾸며놓아 꽃이 필 때면 꽃 천지가 되는 고로 '꽃집' 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은 그 집의 머슴으로 소문이 났던 것이다.

## 자신을 마귀로 여기며 고통을 고소하게 생각했다

새벽이나 저녁이나 종일 일을 하였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정하게 규모 있게 일을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는 하루에 두 집씩 하게 되어 있었다. 오만제단 꼭대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대부분 이사람 손으로 저 날랐던 것이다. 처음에는 가시가 날카로우며 손을 찌르고 피부가 긁히는 일이 예사였다. 먼저 와서 단련된 고탄 형제들을 따라 가려니 상처가 더 많이 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또한 다른 형제들은 땀 나무를 적당히 해오는데 이 사람은 지게 가득 해 가지고 왔다. 걸음을 겨우 떼어 놓을

정도로 무겁게 짊어지고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눈이 온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가끔 다치기도 했고, 겨울이 아닌 때도 나무 부리에 걸려 지게를 짊어진 채 나뭇짐과 같이 거꾸로 몇 바퀴 굴러 떨어져 온 몸에 가시가 찔려서 피부 성이가 되기도 하였다.

숙소에 와서 옷을 벗어 보면 사방에 가시가 박혀 따끔거리고 아픈 그런 상태에서도 '너 같은 새끼는 마귀니까 죽여야 돼.' 하며 자신의 처지를 고소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상처가 나고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약 한 번 쓰지 않고 지냈어도 풀어서 덧나는 일이 없고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신비한 체험을 수없이 하면서 지냈다.

한번은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데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조사장님은 힘이 장사시니 이 돌을 한번 짊어져 보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40대 후반 장년에게는 불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큰 돌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막내로서 고탄 형제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 여기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 바위를 짊어졌다. 일어나니 다리가 후들후



조희성님께서는 나무를 해도 남보다 몇 배 많이 했다.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하더니 어찌보다 더 많이 해야 했던 것이다 / 그림 박준구 장로

들 떨리며 오금이 퍼지지 않아 혼났던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옮겨서 가다보니 중간에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고로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목적지까지 운반해 갔던 것이다.

해외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별명을 '일꾼' '조사장'이라고도 하시고, '12지파 두목'이라고도 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은 전부 '4' 숫자지만 이 사람만은 '5' 숫자라고도 하시었다. "조사장만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말아 놓고 구원이야!" 하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막내동이야'라고도 하셨다.

밀실 식구들은 다 이 사람을 '막내동'이'로만 생각하려 했고, 또 사실상 막내동이 취급을 하였다. 20대 새파란 젊은 청년이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고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했다. 때에 따라서는 잘 해도 자기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하였고 귀찮음을 같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나' 라는 것이 마귀인 고로, '나' 라는 것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 매를 맞아도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순종하고 일을 했다.

## 형제를 하나님같이 여기니 자존심 마귀가 어느 정도 죽었다

이와 같이 나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같이 여기게 되니 자유롭음이 어느 정도 지켜지며 나라는 자존심 마귀가 죽게 되었다. 누가 보기에든 온순하게 대하게 되니, 나중에는 때론 청년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제가 순위 어른을 손찌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였다.

그런 종의 종노릇을 하는 막내동이었던 고로 뜨거운 여름, 섭씨 30도가 오르내리는 날에도 해외주님께서 쓰실 목욕물을 차전거 뒤에 가득 싣고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을 무릅쓰고 걸어 오는 일을 맡아 하였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급경사진 비탈길을 리어카를 끌고 올라오느라 전신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또한 가을철 포도 수확기가 되면 포도를 따다가 손수레에 가득 싣고 부친 청과를 감시장에 내다 팔고, 다시 밀실 식구들이 먹을 수박이며 과일 등을 장바서 상자에 담아 손수레에 가득 싣고 혼자서 비탈진 길을 끌고 와야 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르면 창피하게 생각되는지 뒤에서 밀다가 마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내 자신이 차가 떨리게 미운 마음'으로 남을 의식하지 않는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손수레를 끌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